



전남 담양오방길 2코스 산성길에 있는 금성산성에서 내려다본 시원스런 풍경. 장성 입암산성, 무주 적상산성과 함께 '호남의 3대 산성' 중 하나인 금성산성은 임진왜란 의병부터 녹두장군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군의 유적이 있어 걷기여행과 함께 아이들의 역사교육으로도 좋은 코스이다. 걷기여행을 마치고 피로를 풀 수 있는 온천도 인근에 있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숲을 거닐며 오롯이 만나는 순국선열의 피와 땀



어느새 여름으로 성큼 들어선 느낌을 주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나라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삶을 바친 순국선열의 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나라를 지켜낸 선조들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는 10곳을 '6월의 걷기여행길'로 선정했다.

충무공 이순신의 유적, 토영 이야기길 백범 선생의 충정, 마곡사 솔바람길 둘레가 4km 넘는 청주 상당산성길

●통영 예술가의 향기, 토영 이야~길 1코스(경남 통영시, 4시간)



토영은 '통영'을 발음하는 지역 사투리다. '이야'는 원래 언니를 부르는 말로 친한 이를 부르는 표현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부터 화가 이중섭, 작가 박경리, 작곡가 윤이상 등 통영 시내 문화유산 대부분을 거칠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통영에서도 가장 내밀한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출발해 동피랑 벽화마을을 거쳐 세병관(사진), 충렬사, 중앙시장까지 이어진다. 요즘 화제인 tvN '알쓸신잡' 1회에도 등장했다.

●외세와 맞싸운 격전지, 백화산 호국의 길(경북 상주시, 1시간20분)

신라 태종 무열왕 때는 삼국통일의 전초기지였고, 고려시대에는 몽골군과의 격전지였다. 조선 임진왜란 때에는 의병들의 주 활동지였다. '구수천 옛길'로 불리던 코스로 아름다운 경관이나 문화·역사적인 의미에 비해 그동안 덜 알려졌다. 옥동서원에서 출발해 옛 반야사터까지 약 5km 정도다.

●김구 선생의 자취, 마곡사 솔바람길 1코스 백범길(충남 공주시, 1시간)



마곡사(사진) 백련암에서 은거 수행 생활을 하던 백범 선생이 사색을 하던 발자취를 따라 조성한 길이다. 총 3km로 가볍게 산책이 가능하다. 마곡사 천왕문에서 시작해 대광보전, 대웅보전, 석발바위, 징검다리, 영은교 남측, 송림굴길, 군암대, 명부전 등 가람 배치를 두루 둘러보고 다시 천왕문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빠어난 경관과 온천, 담양오방길 2코스 산성길(전남 담양군, 3시간25분)

담양호와 금성산성이 나란히 있어 주변 경치를 즐길 수 있다. 호남 3대 산성 중 하나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부터 녹두장군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군의 유적이 있어 호국안보의 교육현장으로 인기가. 근처에 온천도 있다. 담양리조트, 금성산성을 거쳐 돌아오는 코스인데 난이도가 꽤 높다.

●안보교육 코스, 한여울길 5코스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강원 철원군, 1시간30분)

철원의 대표 명산으로,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오랫동안 출입이 제한됐다. 5km가 채 안되는데, 노동당사, 지뢰지대가 여정 중에 있다. 정상에 오르면 철원평야와 함께 북한지역도 볼 수 있다. 소이산 입구에서 출발, 지뢰꽃길을 거쳐 생태숲길, 봉수대오름길까지 코스다.

●독립·민주운동 자취, 북한산둘레길 2코스 순례길(서울 강북구, 1시간10분)

4.19 국립묘지를 비롯해 3.1운동, 임시정부, 헤이그특사 등 역사교과서에서 보았던 우리나라 민주, 독립운동사의 주인공들이 곳곳에 잠들어 있다. 출발 근린공원 상단에서 출발해 4.19 전망대, 백련사 탐방로 갈림길, 설다리, 이준열사묘역 입구까지 2.3km 정도 된다.

●400년 탕자나무의 사연, 강화나들길 2코스 호국돈대길(인천 강화군, 5시간50분)



섬을 빙 둘러 만든 방어용 돈대(사진)를 이은 길. 몽골과의 항쟁부터 조선시대의 병인, 신미양요에 이르기까지 외세의 침입을 최일선에서 맞서 싸웠던 현장이다. 조선 인조 시절 해안 방어지점 공사를 하며 탕자나무를 많이 심었던 것이 전해지는 400살 먹은 탕자나무 등을 만날 수 있다. 갑곶돈대에서 출발해 초지진까지 17km 코스다. 난이도가 평이해 어렵지 않다.

●일제강점기 흔적들, 구불길 6코스 달밤을 길(전북 군산시, 6시간)

월명산, 점방산, 장계산, 설립산 등으로 이어져 있는 길로, 봉수대를 비롯해 금강과 서해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은파관광안 내소에서 출발해 부곡산을 거쳐 월명호수, 해망굴, 수덕산공원, 진포해양공원, 재보선창, 경암동 절길 등을 거친다. 난이도는 평이하나, 15.5km로 거리가 제법 된다.

●충북 대표 산성, 상당산성길(충북 청주시, 소요시간 2시간)



둘레가 4km를 넘는 거대한 석축산성으로 보은의 삼년산성과 함께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산성(사진)이다. 성벽을 따라 이어진 길을 걸으면 내내 청주와 청원 지방의 풍광을 바라볼 수 있다. 성안에 음식점도 있어 가족단위로 나들이에 좋다. 난이도가 낮아 산책하기 좋다.

●4.3사건의 아픔을, 제주올레 18코스 산지천~조천 올레(제주 제주시, 소요시간 5~6시간)

산지천마당에서 조천만세동산까지 이어지는 길. 제주시내 올림사라봉과 별도봉을 지나면 4.3사건 때 마을 전체가 불탄 곤을돌 마을 터를 만난다. 도착지점인 조천만세동산은 제주4.3 유적지 중 한 곳으로, 일제강점기 제주의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제주 항일기념관이 있다. 이동거리는 18.2km로 추천 코스 중 가장 길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매출 4574억원 관람객 10만명

12월에 부산서 첫 여행박람회 개최

하나투어(대표이사 김진국)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실시한 '2017 하나투어 여행박람회'가 매출 4574억원을 기록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5월22일부터 3주간 진행한 온라인 박람회와 6월9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한 오프라인 박람회에서 전년 대비 14% 증가한 457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킨텍스 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도 전년보다 5% 증가한 10만 여명을 기록했다. 하나투어의 역대 여행박람회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킨텍스 제1전시장 3.4 홀을 모두 이용한 '2017 하나투어 여행박람회'는 세계 760여 여행 관련 업체들이 1000여개 부스로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혼행족이 느는 트렌드를 반영해 '나를 위한 단 하나의 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했다. 방문객 스스로 인생여행을 경험해볼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VR(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어트랙션 가상체험, 태극 '아프로드테 카바레 쇼', 일본 '노보리베즈 다테 지다이무라' 등의 유명 공연과 세계 각국의 음식과 전통주 등을 맛보는 시식행사도 열렸다. 또한 최근 인기가 높은 테마여행상품(SIT)과 관련해 플랫폼이 박시현 프로의 골프 콘서트, 오세득 셰프의 베트남 반미 경연 등이 주목을 받았다.

김진국 하나투어 대표이사는 "박람회를 찾은 10만 고객들과 밀도 높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여행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투어는 수도권에 이어 하반기에는 부산에서도 여행박람회를 개최한다.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는 영남지역 여행객을 대상으로 12월1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박람회를 연다.

김재범 기자

토박이가 들려주는 부산 동네 '이바구'

산복도로, 원도심 등 부산 시티투어 테마 소개

가파른 계단, 경사에 웅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그리고 산허리를 구비구비 감아도는 길, 요즘 인기높은 부산 시티투어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산복도로'를 테마로 한 색다른 여행해설서가 나왔다.

(주)부산여행특공대의 손민수 대표가 쓴 '산복도로 이바구'(인디페이퍼)는 부산 근·현대사의 발자취가 짙게 남아있는 원도심과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부산의 여행이야기를 담고 있다. 손 대표의 여행해설서에는 그동안 부산여행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해운대나 광안리, 태종대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다.

대신 부산 원도심 관광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했던 주인공답게 400여 페이지의 책 내내 초량 이바구길, 국제시장과 강동시장, 168계단, 아미독 비석문화마을, 영도 봉래산, 흰여울 문화마을 등 부산을 어제와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 냄새 가득한 지역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나눈 각 장 말미에는 들어볼까, 가볼까, 둘러볼까, 맛볼까, 잘까 등 각종 여행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한 '여행자 수첩'이 있어 부산여행을 짜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책의 진짜 매력은 그런 실용적인 정보 못지않게 현지 토박이가 마치 술자리에서 조곤조곤 들려주는 듯한 부산 동네들의 살가운 '이바구'에 있다.

김재범 기자

뉴스디자인 | 이수진 기자

제11회 한국 창업경연대회
중소기업창업상 수상

(주)오징어와 친구들

한국창업경연대회 대상 수상업체로부터
한국창업경연대회 중소기업창업상 수상업체로부터
한국창업경연대회 중소기업창업상 수상업체로부터
한국창업경연대회 중소기업창업상 수상업체로부터
한국창업경연대회 중소기업창업상 수상업체로부터

가맹점 대부분이 7~10년 이상 성업중인 장수 아이템!

장사 잘되는 알파창업

확인 하십시오. 진짜 장사가 잘 되는 제! 자신있게 보여 드립니다!!

차별화된 메뉴구성과 뛰어난 맛! 거기에 가격경쟁력까지 두루겸비한 웰빙건강 해산물전문점 **오징어와 친구들**이 성공창업의 해답입니다. 이제 **오징어와 친구들**로 주변 업종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마음편히 돈만 버십시오!

오징어와 친구들 가맹점주 성공릴레이!!!

김해 장유점
스물여 채년점을 운영하다가 매출감소로 업종전경.
김해의 소문난 맛집

구미 상모점
직장 생활을 과감히 정리하고 오징어와 친구들을 창업하여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장수 매장

인천 검암점
삼겹살 전문점, 꼬치점을 운영해오고 새로운 산오징어 전문점에 도전, 작은 평수에서도 대박 매출 매장

오징어와 친구들 확실한 성공 이유?

산지 경매를 통해 가맹점에 직송체제로 공급, 최대마진률!!

1 주방장 걱정, 조리걱정 완전 해결 2 초보자도 일주일 교육으로 충분

✓ 웰빙식이며 온국민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적 기호식으로 안정적인 매출

✓ 삼겹살집, 피자, 치킨, 호프처럼 한집 건너 한집있는 피터지는 경쟁 업종이 아니라 경쟁 걱정없이 편한 마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

무이자 창업자금 대출지원

가맹점 문의 02)494-5056